제10강 인문정신의 발흥: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 I

(1교시)

자연철학이 주로 이오니아 지방과 이탈리아 지방에서 전개되었다면, 소피스트들과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활동했다.
수많은 도시국가들 중 하나인 아테네는 귀족정, 참주정을 거치면서 마침내 민주주의를 꽃피운 곳이다. 아테네의 정치 실험에서 중요한 분기점을 형성한 것은 솔론의 입법이다(594년) 전차를 몰던 귀족들의 정치가 점차 힘을 잃어가면서 '다모스(데모스)'의 존재가 부각되기 시작했지만, 참주(僭主=tyrannos)들의 등장으로 급격히 독재로 기울기도 하면서 그리스 세계는 늘 정치적으로 요동치는 삶을 살았다.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은 매우 중요한 분기점을 형성하는데, 그의 개혁을 통해 혈족에 기반하던 전통 사회가 물러가고 선발을 통해 정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도래한다. 데모스=민중의 지배, 권력의 교체, 빈부에 상관없는 정치적 평등이 점차 자리 잡았다. 추천 제도와 봉급 제도가 마련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의 개념이 확립된다. 아울러 늘 불안한 정세라는 배경 하에서 문무(文武)가 분리되지 않는 문화가 이어졌다.

페르시아 전쟁은 그리스 역사에서 결정적인 획을 그었다. 490년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 마라톤 평야에 주둔하고서 아테네를 공격했으나 아테네의 중장병(重裝兵) 밀집부대(密集部隊)에 막혀 패퇴한다. 다리우스를 이은 크세르크세스가 다시 480년에 수륙 양면으로 그리스로 진격했으나, 살라미스 해전과 마라톤 전투에서 패해 그리스의 승리가 확정된다. 이후 그리스의 황금시대가 도래한다.
일반 시민이 중장보병(重裝步兵)을 맡고 또 수부(水夫)를 맡았던 사실은 그리스 정치사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여성과 노예를 제외한 불완전한 민주주의였으나, 그리스는 전통 사회에서 유일하게 민주주의를 이룩하게 된다.
그리스 사회의 맹주(盟主)가 된 아테네는 거대한 경제적-문화적 제국을 형성하게 되고 5세기 중엽에는 페리클레스의 지도 하에 찬란하게 빛나는 문화를 이룩하게 된다. 페리클레스는 아테네가 민주주의, 법적 평등, 정치적 자유를 이룬 위대한 국가임을 강조했고, 아테네야말로 '그리스의 학교'라고 자찬했는데 이것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내분은 그리스 사회를 점차 몰락으로 이끌어갔다. (소크라테스도 참여한) 펠로폰네소스 전쟁은 그리스 전역을 황폐화시켰다.

(2교시)

아테네가 그리스 세계의 중심이 되면서 그리스 전역의 지식인들이 아테네로 몰려들었다. '소피아=지혜'를 가졌다는 뜻에서 '소피스트들'로 불린 이들은 그리스인들에게 언어, 문법, 변론술, 웅변술, 글쓰기, … 등 인문과학들을 가르쳤다. 이것은 그리스 정치에서 핵심적인

www.artnstudy.com

역할을 했던 변론의 역할, 당시 사회에서 언어가 가졌던 힘, 문화에 대한 그리스인들의 높아진 갈망, … 등을 배경으로 한다. 오늘날의 미디어나 고액과외를 연상하면 되겠다. 이들은 우주의 이치를 탐구하고 자연의 근본 원리를 찾았던 이전의 자연철학자들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지식인들이었다. 프로타고라스, 히피아스, 프로디코스, 고르기아스 등이 대표적인 소피스트들이다. 그리고 이들과 대결하면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서구 전통 철학의 삼태성(三泰星)이 등장하게 된다.

소피스트들은 경험주의 인식론을 기초로 한다. 따라서 우리에게 지각되지 않는 존재는 인정하지 않는다. 경험이란 일반의 생각과는 달리 인간 주관적인 것이다.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개인적인 것이다. 프로타고라스는 이 때문에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라는 유명한 말을 남긴다. 우리는 사물 '자체(itself)'는 알 수 없다. 인식을 경험의 수준에 제한하려는 이런 시도는 이후 스토아학파와 에피쿠로스학파, 영국 경험론, 실증주의, 현상학, 실용주의 등 여러 형태로 발전되어 나간다.

플라톤의 대화편 『프로타고라스』에서 묘사된 프로타고라스가 얼마나 역사적 프로타고라스와 가까운가에 대해서는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여기에서 프로타고라스가 펼치고 있는 '노모스'의 사유는 그리스 철학의 전환을 잘 나타낸다.

프로타고라스는 자연=퓌지스가 아니라 법=노모스의 사유를 펼친다.(실제 페리클레스가 신도시를 건설할 때 건축은 히포다모스에게, 법은 프로타고라스에게 맡겼을 정도로 법에 밝았다) 노모스는 넓게 말해 문화, 작위(作爲), 관습 등을 뜻한다. 인간의 삶은 퓌지스의 일부가 아니라 퓌지스와 불연속을 이루는(때로는 퓌지스와 적대하는) 노모스의 세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인간은 외부의 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 내부의 분열을 극복해야 한다. 그 장치가 바로 정치이다. 인간은 공동체를 이룸으로써만 생존할 수 있다. 때문에 프로타고라스는 금지와 형벌/정의가 인간사의 핵심이라고 본다. 이 점에서 프로타고라스를 사회과학의 창시자라고도 할 수 있다.

www.artnstudy.com